

문무왕 신격화의 변전 양상과 현대적 의의

-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이 채 경*

차 례

I. 서론	3.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사랑[金堂 龍]
II. 문무왕 신격화의 다양한 변전과 그 의미	4.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의도 [神龍]
1. 신라를 지키려는 군주의 마음 [護國龍]	5. 자손의 번성과 왕실의 번영을 염 원[玉帶龍]
2. 비[雨]를 갈구하는 백성의 기원 [黃龍]	III. 현대적 의의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동해 용신(龍神)으로 신격화된 문무왕이 안장된 대왕암과 그 주변 지역을 아울러 다양하게 변전(變轉)되는 용의 형상과 현대적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대왕암(大王巖), 이견대(利見臺), 감은사(感恩寺) 금당(金堂), 만파식적(萬波息笛), 기림사(祇林寺) 용연(龍淵) 등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용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용은 불교에서는 불법(佛法)을

* 성균관대학교 강사

수호하는 동물로 인식되고, 유교에서는 왕자(王者)를 지칭하는 동물로 상징된다.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호국 불교를 내세운 신라에서 용 이야기는 신격화된 문무왕(文武王)과 그 아들 신문왕(神文王) 그리고 효소왕(孝昭王) 대까지 이어진다.

대왕암에서 비롯된 용의 변전 양상과 각지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무왕이 문혀 호국룡(護國龍)이 되었다는 대왕암은 신라를 지키려는 군주(君主)의 마음이 담긴 곳이다. 둘째, 신문왕이 대왕암에 나타난 황룡(黃龍)을 바라보던 이견대는 비를 갈구하는 백성의 기원이 담긴 기우제(祈雨祭) 장소다. 셋째, 신라왕 부자가 상봉했던 감은사 금당은 용의 현신(現身)인 아버지를 향한 신문왕의 사랑이 서린 곳이다. 넷째, 신문왕에게 기이한 대나무를 알려주고 옥대(玉帶)를 전해준 신룡(神龍)은 만파식적을 만들어 소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다섯째, 옥대에서 떼어낸 옥대룡(玉帶龍)이 승천한 기림사 용연은 신라 왕실의 번영과 자손의 번성을 축원한 장소다.

용 이야기의 출발지는 대왕암이다. 우리는 동해 용신으로 신격화된 문무왕에서 기인한 용을 하나의 문화 코드로 수용하고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국룡의 안장지 대왕암, 황룡을 보았던 이견대, 용이 서린 감은사 금당, 신룡이 전해준 옥대와 만파식적, 옥대룡이 승천한 용연까지 모든 이야기는 용으로 일관된다. 게다가 다양하게 변전된 용의 형상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존재의미를 지니고 등장한다. 이를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하고, 새롭게 문화콘텐츠화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의 자취를 따라 ‘대왕암-이견대-감은사 용당-만파식적-기림사 용연’으로 이어지는 ‘미르길[드라곤 로드]’을 열 수 있다. 이를 어린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들면 부모를 동반하여 동해안 문화체험 가족여행 코스로 적합하다. 둘째, 용의 특징을 꼽아 ‘호국룡-황룡-금당룡-신룡-옥대룡’으로 분류하여 ‘용용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즉 신라 역사와 교훈

에 용의 이미지를 잘 조화시켜 스토리텔링하고 각기 다른 캐릭터 스탬프를 개발함으로써 ‘미르투어, 스탬프텔리’도 가능하다. 셋째, 신라시대 용 모양 토우(土偶)를 재현하여 콘텐츠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상상속의 동물인 용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작업으로, 어린이 창의력 개발에도 좋다. 이처럼 용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온고지신(溫故知新) 형태로 관광 상품화 할 주요 테마이다.

주제어 : 용(龍), 대왕암[호국룡], 이견대[황룡], 감은사 용당[금당룡], 만파식적[신룡], 기림사 용연[옥대룡], 문화콘텐츠, 미르길, 용용캐릭터, 용 모양 토우 등

I. 서론

한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는 드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쓰였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견문이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지금도 흔히 쓰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언도 있다. 이는 다양한 경험에 앞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몸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무언가를 접했을 때보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뒤에 그것을 접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역대 시문집에 보이는 대왕암(大王巖)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동해 용신으로 신격화된 문무왕 이야기의 다양한 변전 양상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문무대왕암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관해서는 수차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지리학)

1) 박일흠·이영권, 『하천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대왕암 주변의 해안선 변화』, 『한

이나 역사학²⁾ 또는 고고미술사학³⁾이나 문화재적 측면⁴⁾에서 다루어졌다. 민속학⁵⁾에서도 ‘고대 해룡(海龍)’이라든지 ‘용신(龍神) 신앙’에 논의가 집중되었으며,⁶⁾ 더 이상 연구 주제 및 범주를 넓혀 논지를 확장시키지 못했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고려(高麗)를 거쳐 조선(朝鮮)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대왕암과 주변 지역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되짚어 본다. 이를 통해 대왕암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아울러 고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며, 더불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도서연구』22권 1호, 한국도서(섭)학회, 2010. 151-167쪽 등

- 2) 김창호,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신라인의 조상 인식』, 『한국사연구』53권, 한국사학회, 1986. 17-37쪽 ; 이영호, 『신라 문무왕릉비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8권, 역사교육학회, 1986. 37-75쪽 등
- 3) 황수영, 『감은사지귀면와』, 『미술사학연구』22권, 1962. 249쪽 ; 한정호, 『감은사지 쌍탑과 고선사지 삼층석탑 비교 고찰』, 『석당논총』48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29-53쪽 등
- 4) 문환석·류인숙,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기단부 출토유물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19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98. 159-177쪽 등
- 5) 박계홍, 『고대 용신(龍神) 사상에 관한 연구 - 한국민속연구의 일단으로 - 기3』, 『한국언어문학』6권, 한국언어문화회, 1969. 121-138쪽 ;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11권,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4. 123-154쪽 등
- 6) 강영경, 『한국 고대 海龍의 성격』,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4, 목포대학교, 2012. 72-82쪽 ; 이용범, 『해안지역 민간신앙에서의 용신(龍神)의 위상』,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4, 목포대학교, 2012. 56-60쪽 등
- 7)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일부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넘어서기에 주목된다. 이창식,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신라문화』4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115-142쪽 ; 강석근, 『경주 이견대(利見臺) 시문 연구』, 『온지논총』39권, 온지학회, 2014. 9-39쪽 ; 김성혜, 『만파식적 설화의 문화적 의의와 활용 방안』, 『음악과 민족』45권, 민족음악학회, 2013. 207-236쪽 ;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8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525-536쪽 ; 강석근·이창식,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오종수(五種水)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16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3. 65-93쪽 ; 강석근, 『기림사 오색화의 연원과 그 문화적 의미』, 『신라문화』42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403-423쪽 등

II. 문무왕 신격화의 다양한 변천과 그 의미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古都)이자, 역대 최초로 통일 대업을 이룩한 유서 깊은 왕도(王都)이다. 이는 역사서로 알려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된 사실이다. 또 조선시대 시문집인 『동문선(東文選)』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의 시문집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주는 동경(東京)·동도(東都)·금성(金城)·계림(鷄林) 등으로 불렸던, 전대(前代)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보고(寶庫)이자, 소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현장이다. 따라서 천년 유적지로서 남다른 가치를 지닌 곳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명승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경주의 고적 명승지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목받는 곳이다. 그 가운데 대왕암(大王巖)을 중심으로 이견대(利見臺), 감은사(感恩寺), 만파식적(萬波息笛), 기림사(祇林寺) 등을 아울러 조명하고 있다. 그러면 문헌자료에서 이러한 제재를 통해 드러난

8) 경주를 노래하고 기록한 대표적인 문인 학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은 『고운집(孤雲集)』권3에서 <화엄불국사수석가여래상변찬(華嚴佛國寺繡釋迦如來像幡贊)> 외 다수 작품을 남겼다. 또 고려시대 이색(李穡)은 『목은시고(牧隱詩藁)』권4에서 <부상음(扶桑吟)> 외, 이승인(李崇仁)은 『도은집(陶隱集)』권5에서 <초옥자전(草屋子傳)> 외 다수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김시습(金時習)이 『매월당집(梅月堂集)』권12에서 <유금오록(遊金鰲錄)> 외, 안정복(安鼎福)이 『순암집(順菴集)』권1에서 <우리 역사를 보다가 느낀 점이 있어 악부체를 본떠서 읊다[觀東史有感 效樂府體]> 외 다수 작품을 남겼으며, 홍양호(洪良浩)는 『이계집(耳溪集)』권16에서 <제신라문무왕릉비(題新羅文武王陵碑)> 외, 이언적(李彦迪)은 『회재집(晦齋集)』권1에서 <감포 바다 배 안에서 한자고(韓子沽)에게 시를 지어 주다[甘浦舟中 贈韓子沽]> 외 다수 작품을 남겼다. 아울러 이유원(李裕元)도 『임하필기(林下筆記)』권38에서 <이견대가(利見臺歌)> 외 다수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역사적 저변 의식과 문화적 이해 관점을 문무왕 신격화와 연계시켜 그 변전 양상과 의미를 분석해 본다.

1. 신라를 지키려는 군주의 마음[護國龍]

대왕암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무왕이 신라를 지키려는 호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무왕이 죽어서 대왕암에 묻히고 호국룡(護國龍)이 된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 유사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이견대(利見臺)는 경주부(慶州府) 동쪽 50리 해안(海岸)에 있다. ○ 세간에 전하기를, “왜국(倭國)이 자주 신라를 침범하니, 문무왕(文武王)이 이것을 근심하여 죽으면 용(龍)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고 도적을 방어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를 동해의 물속에 장사지내라.’ 하였다. 신문왕(神文王)이 그 유언대로 하고 장사지낸 뒤에 추모하여 대(臺)를 쌓고 바라보았더니, 큰 용이 바다 가운데 나타나 보였다. 그로 인하여 이견대(利見臺)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대 아래로 10보(步) 바다 가운데 네 뿔처럼 우뚝 솟은 돌이 네 문과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문무왕을 장사지낸 곳이다. 지금까지 대왕암(大王巖)이라고 일컫는다.⁹⁾

대왕암 관련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다. 이들 역사서나 인문 지리서에 실린 내용은 별 차이가 없으며, 기록자들에게는 과거 실재했던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당시 삼국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문무왕은 동해에 수장(水葬)되

9) 『新增東國輿地勝覽』권21, <慶尙道/慶州府>. “利見臺 在府東五十里海岸 世傳 倭國數侵新羅 文武王患之 誓死爲龍 護邦國 而禦寇盜 將薨 遺命葬我于東海濱水中 神文王從之 葬後追慕 築臺望之 有大龍 見于海中 因名曰利見臺 臺下十步 海中有石 四角聳出如四門 是其葬處 至今稱爲大王巖.”

기를 바랐으며, 왜 군이 해룡(海龍)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했을까?

신라는 박혁거세(朴赫居世) 재위 당시부터 왜국의 침입을 받았으며,¹⁰⁾ 조분왕(助賁王)¹¹⁾과 소지왕(炤知王)¹²⁾ 이외에도 눌지왕(訥祗王) 대를 포함하여 총 30여회 침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소지왕 15년(493)에는 백제 동성왕(東城王)에게 이별찬 비지(比智)의 딸을 시집보냄¹³⁾으로써 백제와 연합하여 왜적을 방비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처럼 대륙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합병하여 명실상부 삼국을 통일했지만, 해상에서는 계속되는 왜국의 침공을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문무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고 싶었으며, 왜국의 침입이 빈번했던 동해에 묻히기를 서원(誓願)하기에 이른다. 그런 부왕(父王)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신문왕은 그의 유언대로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바다 가운데 안장함으로써 신라에서 전무후무하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중릉을 조성했다. 사방 빨처럼 솟은 네 바위 사이로 바닷물이 드나들 때마다 통일국가의 해룡은 자손대대 평안해질 신라를 가슴에 안고 동해바다를 넘나들었을 것이다.

문무왕은 사후(死後)에 이루어질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한 장지(葬地)를 미리 지정해주고, 구체적인 장례법[화장(火葬)+수장(水葬)]을 제시한 다음,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겠노라고 장담한다. 그런데 장지는 바로 동해였으며,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뼈를 부수어 동해에 뿌리는 수장으로 마무리하라고 유명(遺命)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무왕이 되고자 한 것은 바로 용(龍)이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용은 짐승이라 신라왕이 몸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문무왕은 해룡으로 화하여 살

10) 『三國史記』, <新羅本紀>, 朴赫居世條. “八年 倭人行兵 欲犯邊 聞始祖有神德 乃還”

11) 전계서, 助賁王條. “三年 夏四月 倭人猝至圍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

12) 전계서, 炤知王條. “二十二年 春三月 倭人攻陷長峰鎮”

13) 『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條. “十五年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滄比智女 歸之”

아서나 죽어서나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당시 왜적의 침입은 신라왕들에게 근심거리였다. 문무왕 이전에 무열왕도 동래(東萊) 바다 절영도(絶影島)에 진지를 쌓아 신라를 괴롭히는 왜국 정벌에 이용했다¹⁴⁾는 기록이 보인다. 무열왕은 살아서 바다를 건너가 왜국을 정벌하겠노라고 호언했으며, 문무왕은 죽어서 바다를 건너오는 왜적을 물리치겠노라고 유언했다. 통일 대업을 이룬 무열왕이나 통일국가를 지키려는 문무왕의 호국 의지는 확고했으며, 결국 문무왕의 염원은 이루어져 이견대에서 아들 신문왕이 바라보는 가운데 황룡(黃龍)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4) 安鼎福, 『順菴集』 권1, <觀東史有感 效樂府體>. “白馬塚行 金東溟世濂槎上錄云 觀其年代記 倭皇神應之二十二年 新羅兵入明石浦 距大阪纔百里 赤間關東 有一邱壘 倭人指之曰 此卽白馬墳 新羅兵深入 日本人請和解兵 刑白馬以盟 埋馬於此 云 據申保閑海東諸國記 應神之二十二年 當新羅儒理王之八年 卽晉惠帝元康元年也 此事東史不見 海東記 達敏天皇癸卯 新羅來伐西鄙 當羅眞平王之五年 又元正天皇庚申 新羅來伐西鄙 當聖德王之十九年 東史皆逸 今東萊海中絶影島有古壘 世傳新羅太宗伐倭時所築 因稱太宗臺”

2. 비[雨]를 갈구하는 백성의 기원[黃龍]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이물(異物)로,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물[水]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다. 용에는 해룡(海龍), 정룡(井龍), 지룡(池龍) 등이 있는데, 우물[井]에 사는 정룡은 생명수를 주관하고, 못[池]에 사는 지룡은 치수(治水) 능력을 지녔으며, 바다[海]에 사는 해룡은 풍요로운 생활과 풍부한 경제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¹⁵⁾ 이들은 운무(雲霧)와 강우(降雨)를 통제함으로써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용은 절대 권력자 왕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가 신성한 능력을 동원하여 거두어야 할 백성들의 우두머리다.

주지하다시피 이견대는 신문왕이 부왕의 수증룡을 바라보며 배알하던 곳이다. 문무왕은 죽어서 동해에 수장되었고, 대왕암은 그의 산골처(散骨處)이다. 문무왕은 사후(死後)에도 신라를 수호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자손대대 번영과 영화를 누리기를 바랐다. 그런 부왕의 의지와 심정을 잘 알기에 신문왕은 항상 선친을 추모하고 효성을 다했던 것이다.¹⁶⁾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더니 대왕암 위에 황룡이 모습을 드러냈다.¹⁷⁾ 문무왕은 소원대로 동해의 용이 되었으며, 신문왕은 부왕의

15) 해룡과 용신에 대해서는 2012년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3에 실린 강영경의 『한국 고대 해룡(海龍)의 성격』(72-82쪽)과 이용범의 『해안 지역 민간 신앙에서의 용신(龍神)의 위상』(56-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문무왕과 신문왕 부자의 만남을 소재로 한 <이견대가(利見臺歌)>가 있었다고 하나, 가사는 전하지 않고, 제목과 제작 동기만 간략히 기록되어 전한다. 『고려사(高麗史)』 권71 악지(樂志) 25 삼국속악(三國俗樂) 신라(新羅) 조 “世傳 羅王父子久相失 及得之 築臺相見 極父子之權 作此以歌之 號其臺曰利見 蓋取易利見大人之意也 王父子無相失之理 或出會隣國 或爲質于 未可知也.”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06 악고(樂考) 17 신라악(新羅樂) 조 “利見臺歌 世傳 羅王父子久相失 及得之 築臺相見 極父子之樂 作此歌.” 이에 관한 연구는 박노춘, 『<利見臺歌> 雜考』, 『겨레어문학』5집, 겨레어문학회, 1969. 34-37쪽; 이창식, 『<利見臺歌>와 ‘萬波息笛’ 說話의 性格』, 『동국어문논집』4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177-196쪽; 강석근, 『경주 이견대(利見臺) 시문 연구』, 『온지논총』39권, 온지학회, 2014. 9-39쪽 참조

현신(現身)을 영접하기에 이른다.

용이 조화를 부려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견대를 우단(霧壇)으로 삼고,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용으로 화한 문무왕은 동해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동시에 조화를 부려 강우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부여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그가 용신(龍神)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신라의 안위를 근심하는 왕의 마음과 비를 기원하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문헌에서 기우제와 관련된 자료는 많으며,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는 용을 그려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¹⁸⁾도 보인다.

내가 예전에 계림(鷄林; 慶州)을 다스렸는데, 계림은 바로 신라 고도이다. 당시 날이 가물어 산천에 기도했는데, 동해 가에 있는 우단(霧壇)을 이견대(利見臺)라고 불렀다. 나는 기우제에 쓸 폐물을 갖추어 그곳으로 갔다. 이견대는 큰 바닷가에 있고, 돌 언덕이 불룩하게 솟아 대를 이루었다. 고을 사람에게 ‘이견(利見)’의 뜻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옛날 신라는 문무왕 대에 왜(倭)와 인접하여 수차례나 침범을 당하는 곤역을 겪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실 때 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장사를 지내라. 내가 응당 화하여 용이 되어서 왜병을 물리칠 것이다.” 바다 가운데 큰 바위가 작은 섬처럼 우뚝 솟아 있었는데, 태자와 신하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바위 사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과 우레가 크게 일어나더니 황룡이 바위 위에 나타나 신하와 백성이 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며 절하고는 그것을 ‘이견대(利見臺)’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윽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

17) 李裕元, 『林下筆記』 권38, <東京古蹟考察>. “新羅文武王墓 在鷄林霧壇之傍 初王困於倭 臨薨詔曰 葬我於海中 當化爲龍以距倭 海中有大石如小島 葬於石間未幾 風雷大作 有黃龍見於石上 名其臺曰利見 遂以爲禱雨所 事在三國史”

18)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平王條. “五十年 春二月 百濟圍椴岑城 王出師擊破之 夏 大旱 移市 畫龍祈雨 秋冬民飢 賣子女”

로 삼았는데, 매년 영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 (하략)¹⁹⁾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기록에 따르면, 이전대는 조선 후기에도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그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내는 동안에 가뭄이 들자, 기우제에 쓸 폐물을 갖추어 직접 이전대로 행차한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대에 있었던 기이한 사건과 함께 기우제를 지내면 매년 영험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 당시 대왕암에 나타난 황룡을 바라보며 신하와 백성들은 이전대에서 고개 숙여 절했으며,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후대인 역시 당시 사건을 황룡과 기우제를 연관시켜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있다.

이전대는 본래 신문왕이 대왕암에 나타난 문무왕의 화신인 황룡을 처음으로 보았다는 곳이다. 그런데 해변에서 가까운 대왕암의 입지 조건과

19) 洪良浩, 『耳溪集』 권16, <題新羅文武王陵碑>. “余於曩歲 尹鷄林 卽新羅故都也 時天旱 行禱于山川 東海上有雩壇 曰利見臺 余乃具祝幣往焉 臺在大海之傍 石阜突起成臺 問邑人以利見之義 對曰 昔新羅文武王隣於倭 數困於侵伐 臨薨 詔太子曰 我死 必葬於海中 當化爲龍以距倭兵 海中有大石嵯峨屹峙如小島 太子羣臣 不敢違 葬於石間 未幾風雷大起 有黃龍見於石上 臣民登臺而望拜焉 名其臺曰利見 遂以爲禱雨之所 輒有靈應云 …… (下略)”

용이라는 특정 동물을 연계시켜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변모되었다. 용이 강우와 풍요를 관장하는 동물이라는 데 주목하여 풍어(豐漁)와 풍년(豐年)을 기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호국 이미지로 고착되려던 문무왕의 의지와 바람은 애민(愛民) 또는 생민(生民)으로 확장되었으며, 이후 신문왕과 효소왕(孝昭王) 대를 거치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다채로운 이미지로 재탄생된다.

3.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사랑[金堂龍]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무왕은 왜병(倭兵)을 진압하고자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했으나 완공하지 못한 채 죽어서 해룡이 되었다. 당시 왜국은 수시로 신라의 변방을 침입하였고, 당나라를 견제하기도 벅찬 처지에 왜침(倭侵)은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문무왕은 불력(佛力)으로 나라를 지키려한 것이다.

제31대 신문대왕(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政明), 성은 김씨(金氏)이다. 개요(開耀) 원년(元年) 신사(辛巳; 681) 7월 7일에 즉위했다. 아버지 문무대왕(文武大王)을 위하여 동해(東海) 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세웠다. 【절에서 전해지는 기록[寺中記]은 다음과 같다. 문무왕(文武王)이 왜병(倭兵)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 창건(創建)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龍)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神文王)이 왕위에 올라 개요(開耀) 2년(682)에 공사를 끝냈다. 금당(金堂) 뜰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유언(遺言)으로 유골(遺骨)을 간직해 둔 곳은 대왕암(大王巖)이고, 절 이름은 감은사(感恩寺)이다.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이견대(利見臺)라고 했다.】²⁰⁾

20) 『三國遺事』, 紀異 2, <萬波息笛>.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金氏 開耀元年辛巳 七月七日即位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

그러나 세월이 흘러 왕이 바뀌자, 감은사 창건 취지도 변하게 된다. 부처님의 힘으로 왜병을 진압하려던 문무왕이 죽자, 그 아들 신문왕은 부왕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절을 완공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感恩寺)’라고 이름 짓는다. 문무왕 창건 당시 ‘호국(護國)’을 내세운 것이 신문왕 대에 이르러 ‘감은(感恩)’으로 변모한 셈이다.²¹⁾



이제 신문왕은 대왕암에서 굳건히 신라를 지키는 선왕(先王)을 감은사에서 영접할 방법을 찾는다. 감은사 금당(金堂)은 독특한 형태로 건축되어 주춧돌 아래에 일정하게 틈이 있으며, 금당의 섬돌 아래에는 동쪽을 향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전한다.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용이 금당 아래에 있는 틈으로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 장치를 갖추으로써 해룡이 된 문무왕이 서릴 수 있도록 특수 공간을 마련했다고 추측된다.

감은사는 문무왕대에 호국 사찰로서 건립되기 시작했으나, 신문왕 대에 완공되고 나서는 부자(父子)가 상봉하는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排 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葬骨處 名大王巖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21) 감은사에 대해서는 황수영, 『感恩寺』, 『역사학보』15집, 역사학회, 1961. 135-145쪽; 윤무병, 『感恩寺 - 黃壽永氏의 書評을 읽고서』, 『진단학보』22집, 진단학회, 1961. 168-175쪽 참조

변모했다. 물론 호국룡이 된 부왕을 영접하는 상황에서 보면 국가 내지는 왕가(王家)의 사건이지만, 용이 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자식으로서 마주하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기에 신문왕은 금당 아래로 물길을 터서 아버지가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했으며, 그런 자식의 마음을 이해한 문무왕은 신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신비한 선물을 내려주었다.

조선 중기에 이덕홍(李德弘)은 경주지역을 유람하고 <동경유록(東京遊錄)>을 남겼다. 빗속에 찾아간 과정과 정황을 잘 묘사했는데, 특히 감은사 빈 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쌍탑(雙塔)만 우뚝 서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²²⁾ 신라왕 부자가 상봉한 금당에는 아직도 구멍이 남아있어 해룡이 된 부왕이 들어와 서리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후세에 전해줄 감은사는 인적조차 드문 곳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감은사의 내력과 사연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고, 유람객마저 황폐해진 주변 정경에만 눈을 돌릴 뿐이었다.

4.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의도[神龍]

신문왕은 문무왕을 동해 가운데 장사지내고 나서 수증룡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견대를 지었다. 그리고 부왕이 미처 완공하지 못한 감은사를 지어 금당에서 부자가 상봉하곤 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용이 등장한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어 스스로 호국룡이 되고자 했으며, 아들이 이견대에서 대왕암을 바라보았을 때도 황룡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당 아래로 난 물길을 따라 자유롭게 감은사에 드나들었다. 게다가 소리

22) 李德弘, 『良齋集』권7, <東京遊錄>. “(上略) …… 亭午 帶雨抵要光院 抹馬息肩 谷邃林深 奇巖怪石 羅列左右 大雨猶作 前溪欲漲 飲酒數椀 因醉一夢 而起吟一絕 忘未記焉 沿溪而下 漸至海口 平蕪寬衍 鷄犬相聞 路傍有雙塔 乃羅代感恩寺基也 …… (下略)”

로써 풍랑을 잠재우고 날씨를 다스리며 적군을 물리치는 만파식적²³⁾을 얻는 과정에서 또 다시 용이 등장한다.

‘신문왕(神文王) 때 동해 가운데로 작은 산이 등등 떠 와서 감은사(感恩寺)를 향해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였다. 임금에 이상히 여겨 바다에 배를 띄워 그 산에 들어가니, 산 위에 한 그루의 대[竹]가 있었다. 명하여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비가 개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하며 역대 임금들이 보배로 여겼다. 효소왕(孝昭王) 때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가호(加號)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졌다.²⁴⁾

만파식적은 신문왕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데 일조한 신물(神物)이다.²⁵⁾ 그런데 사실 그 용도나 효능보다 그것을 얻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가 더 화제였다. 문무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었으며, 자신을 그리워하는 아들을 돕는 아버지이고자 했다. 자기 재임 시기에 비해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여 신문왕이 무사히 통일 신라를 지

23) 李裕元, 『林下筆記』 권38, <萬波息笛>. “兵退病痊雨雨晴 一吹呈異寶東京 小山浮到山生竹 萬萬波波息以名 神文王時 小山浮海上 有一竿竹 命作笛 吹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因以名之”

2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尙道/慶州府>. “神文王時 東海中 有小山浮來 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泛海入其山 上有一竿竹 命作笛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歷代傳寶之 至孝昭王 加號萬萬波波息笛 今亡.”

25) 만파식적에 대해서는 황수영, 『新羅梵鐘과 萬波息笛 說話』, 『신라문화』1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7-11쪽; 남재철, 『新羅玉笛 考證』,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235-258쪽; 박진태, 『만파식적 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125, 2008. 527-552쪽; 김종근, 『<만파식적> 설화의 다시읽기를 통한 통합의 의미 탐색』, 『온지논총』27집, 2010. 73-100쪽; 김성혜, 『만파식적 설화의 문화적 의의와 활용방안』, 『음악과 민족』45권, 민족음악학회, 2013. 207-236쪽 참조

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 만파식적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용이 등장하지만, 어찌 보면 문무왕의 분신(分身)에 다를 아니다.



용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만파식적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해관(海官)이 ‘동해에 작은 산 하나가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아뢰자, 신문왕은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라고 명한다. 이후 일관은 “부왕께서는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三韓)을 진호(鎭護)하고 계시며, 또 김유신 공(金庾信公)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대신(大臣)이 되었습니다. 이 두 성인(聖人)이 덕(德)을 합쳐 이 성을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니,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귀중한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라고 아뢴다.²⁶⁾

26) 『三國遺事』, 紀異 2, <萬波息笛>.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 天授元年 誤矣】海官波珍浪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占之 曰 聖考今爲海龍 鎭護三韓 抑又金公庾信 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幸海邊 必得無價大寶 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 夜合一【一云山亦晝夜開合如竹】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振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 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間

해관이 기이한 사건을 목도하고, 일관이 이상한 변괴를 접쳐본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상이변(奇狀異變)은 바로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天神)이 된 김유신이 신문왕에게 신라를 지킬 소중한 보물을 내려주기 위해 일으킨 조화였다. 여기서도 밝혀졌듯이 문무왕은 화하여 용이 되었으며, 이후에 등장하는 신룡(神龍)은 두 성인(聖人;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사자(使者)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검은 옥대(玉帶)를 바치고 나서 신기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이라고 전언(傳言)한다. 결국 신문왕은 신룡의 말에 따라 만파식적을 만들어 월성 천존고(月城天尊庫)에 보관하기에 이른다.

5. 자손의 번성과 왕실의 번영을 염원[玉帶龍]

지금까지 문무왕의 현신이라고 할 용 관련 이야기는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었다. 대왕암에 묻힌 호국룡에서 시작하여 이견대에서는 황룡으로 나타났다가 감은사를 드나들며 금당에 서리기도 하고 만파식적을 만들라고 권유하는 신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상으로 여러 문헌에 기록되었다. 이제 만파식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림사(祇林寺) 용연(龍淵)에서 승천하는 옥대룡(玉帶龍)이다.

왕이 감은사에서 묵고, 17일에 기림사(祇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太子) 이공(理恭) 【바로 효소대왕(孝昭大王)이다.】 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와서 하례하고는 천천히 살펴보고 아뢰었다. “이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曰 此山與竹 或判或合 如何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庾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 (中略) …… 駕還 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至孝昭大王代 天授四年癸巳 因夫禮郎生還之異 更封號曰萬萬波波息笛 詳見彼傳.”

진짜 용입니다.” 왕이 말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그러자 태자가 말했다. “이 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넣으니, 금세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다. 인하여 그 못을 용연(龍淵)이라고 불렀다.²⁷⁾



신문왕은 대나무를 베어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변을 경험하는데, 바로 신룡이 준 옥대의 여러 쪽이 모두 하나하나 진짜 용이었던 것이다. 궁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신문왕을 마중하러 나온 태자(太子) 이공(理恭; 훗날 孝昭王)이 옥대를 찬찬히 살펴보고 조심스레 용이라고 아뢰었다. 이후 그의 말대로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넣으니, 그것은 금세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이내 못이 되어 용연(龍淵)으로 불리게 된다.

27) 『三國遺事』, 紀異 2, <萬波息笛>.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書鑿太子理恭【即孝昭大王】守關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 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이 이야기에서 해룡(海龍; 文武王)은 천신(天神; 金庾信)과 힘을 합쳐 신룡을 보내 기이한 대나무를 얻게 하고, 수많은 용으로 이루어진 옥대를 전해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의 개체수는 하나에서 다수로 늘어나고, 활동 영역과 영향력은 동해 바다에서 내륙 연못까지 넓혀진다. 앞서 해룡이 풍요로운 생활과 풍부한 경제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는 곧 자손의 번성과 왕실의 번영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문무왕의 바람은 왜적의 침입에서 신라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라의 무궁한 발전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만파식적의 신비로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상이변(氣象異變)과 기행이적(奇行異蹟)이 필수요소였다. 먼저 문무왕이 문헌 동해에서 작은 산이 떠내려 오고, 그 산에는 밤낮으로 둘로 나뉘었다 하나로 합쳐지는 대나무가 있다. 그리고 문무왕이 보낸 신룡이 신문왕을 찾아와 옥대를 바치는데, 그 옥대의 어느 쪽이든 시냇물에서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용이 등장하고, 그 용이 끊임없이 조화를 부리는 가운데 만파식적이 만들어져 왕실을 번영케 하고, 용연에서 옥대룡이 승천함으로써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왕암과 관련하여 이견대, 감은사 용당, 만파식적, 기림사 용연 등에 얽힌 이야기는 후대로 갈수록 본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신라를 지키려는 군주의 마음[護國], 아버지를 향한 애뜻한 사랑[孝誠], 삼국통일 주역 등장과 왕권 강화 의지[政治],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의도[齊世], 비를 갈구하는 백성의 기원[祈雨] 등 다양한 주제를 간직한 채 생동감 있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곳들은 옛날이야기를 담은 고적지나 명승지 이상의 가치를 담보하기 힘들어진다. 때문에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서적에서 읽고 배운 내용을 기억한 채 한가롭게 유람하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다.

Ⅲ. 현대적 의의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이상 대왕암을 중심으로 이견대, 감은사 금당, 만파식적, 기림사 용연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용을 모티브로 한 것임에 주목하였다. 예로부터 용은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유교에서는 왕자(王者)를 지칭하는 동물로 상징화되었다. 역대 문헌에서 포착되는 용의 모습도 크게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 호국 불교를 내세운 신라에서 용은 낯설지 않은 존재였으며,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려 한 문무왕과 그 아들 신문왕 그리고 효소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라왕이었다. 여기서 자연스레 탄생한 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국룡이 되고자 한 문무왕이 문헌 대왕암. 이는 문무왕 사후(死後)에 신라의 국가 기반 안정과 왕권 강화 측면에서는 물론 현재 남북 분단 상황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호국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곤 했다. 둘째, 신문왕이 대왕암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룡을 바라보던 이견대. 용이 강우와 치수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역대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알려졌다. 셋째, 신라왕이자 용의 현신으로 마주한 두 부자가 상봉했던 감은사. 금당의 기단 아래에 구멍을 내어 용이 자유롭게 들어와 서리도록 배려했다. 넷째,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을 만드는 기이한 대나무를 알려주고 옥대를 전해준 신룡. 해룡과 천신이 힘을 합쳐 용으로 하여금 신물을 바치도록 했다. 다섯째, 옥대에서 떼어내자 용연에서 하늘로 올라간 작은 옥대룡. 해룡이 풍요를 상징한다면, 이는 신라 왕실과 자손의 번성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모든 용 이야기의 출발지는 바로 대왕암이다. 이제 우리는 용을 더 이상 상상속의 동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코드로 수용하고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국룡의 안장지 대왕암, 황룡을 보았

던 이견대, 용이 서린 감은사 금당[용당], 신룡이 전해준 옥대와 만파식적, 옥대룡이 승천한 용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는 용으로 일관된다. 게다가 각각의 용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존재의미를 지니고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왕암 관련 지역과 용 이야기를 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다.

첫째, 용의 자취를 따라 대왕암-이견대-감은사 금당-기림사 용연으로 이어지는 ‘미르길[드라곤 로드]’을 열 수 있다. 이를 어린이 체험 학습의 장으로 만들면 동행한 부모까지 포함시켜 가족여행 코스로 자리 잡힐 수도 있다. 둘째, 용의 특징을 꼽아 호국룡-황룡-금당룡-신룡-옥대룡으로 분류하여 ‘용용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어린이 체험 학습에 적용시켜 각기 다른 캐릭터 스탬프를 개발하여 흥미와 교육을 아우를 수도 있다. 요컨대 이처럼 신라 역사와 교훈 그리고 용의 이미지를 잘 조화시켜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미르투어, 스탬프텔리’가 가능해진다. 셋째, 신라시대 용 모양 토우(土偶)를 재현하여 경주의 얼굴이자 콘텐츠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는 상상속의 동물인 용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작업이자, 풍부한 문화자원을 내포한 지역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 형태로 관광 상품화 할 주요 테마이기도 하다.

1941년에 고유섭 선생은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을 찾으라, 문무왕의 정신을 길어 보아라.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을 찾으라.”고 말했다.²⁸⁾ 2014년에 우리는 대왕암에 관련된 용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여 문화적으로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28) 이 말은 고유섭 선생이 1958년(통문관)에 펴낸『전별의 병』에 담긴 글로, 이후 조성환이 2010년(학고방)에 편찬한『경주에 가거든』에 실린 것을 발췌하여 옮겨 적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김시습(金時習), 『매월당집(梅月堂集)』(『한국문집총간』13집, 1988.)

안정복(安鼎福), 『순암집(順菴集)』(『한국문집총간』229집, 1999.)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고전원문 DB)

이덕홍(李德弘), 『간재집(良齋集)』(『한국문집총간』51집, 1990.)

이 색(李 穡), 『목은시고(牧隱詩藁)』(『한국문집총간』3집, 1990.)

이승인(李崇仁), 『도은집(陶隱集)』(『한국문집총간』6집, 1990.)

이언적(李彦迪), 『회재집(晦齋集)』(『한국문집총간』24집, 1988.)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고전번역서, 1999.)

최치원(崔致遠), 『고운집(孤雲集)』(『한국문집총간』1집, 1990.)

홍양호(洪良浩), 『이계집(耳溪集)』(『한국문집총간』241집, 2000.)

강석근, 「감포 이견대(利見臺) 시문 연구」,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4, 2012. 43-48쪽

강석근 · 이창식,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오종수(五種水)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16권, 역사문화학회, 2013. 65-93쪽

강석근, 「기림사 오색화의 연원과 그 문화적 의미」, 『신라문화』4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403-423쪽

- 강석근, 「경주 이견대(利見臺) 시문 연구」, 『온지논총』39권, 온지학회, 2014. 9-39쪽
- 강영경, 「한국 고대 海龍의 성격」,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3, 2012. 72-82쪽
- 김성혜, 「만파식적 설화의 문화적 의의와 활용방안」, 『음악과 민족』45권, 민족음악학회, 2013. 207-236쪽
-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11권,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4. 123-154쪽
- 김종근, 「〈만파식적〉 설화의 다시읽기를 통한 통합의 의미 탐색」, 『온지논총』27집, 2010. 73-100쪽
- 김창호,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신라인의 조상 인식」, 『한국사연구』53권, 한국사학회, 1986. 17-37쪽
- 남재철, 「新羅玉笛 考證」, 『동방한문학』37집, 동방한학회, 2008. 235-258쪽
- 문화석 · 류인숙,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기단부 출토유물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19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98. 159-177쪽
- 박계홍, 「고대 용신(龍神) 사상에 관한 연구 - 한국민속연구의 일단으로 - 기3」, 『한국언어문학』6권, 한국언어학회, 1969. 121-138쪽
- 박노춘, 「〈利見臺歌〉 雜考」, 『겨레어문학』5집, 겨레어학회, 1969. 34-37쪽
- 박일흠 · 이영권, 「하천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대왕암 주변의 해안선 변화」, 『한국도서연구』22권 1호, 한국도서(섬)학회, 2010. 151-167쪽
- 박진태, 「만파식적 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125, 2008. 527-552쪽
- 윤무병, 「感恩寺 - 黃壽永氏의 書評을 읽고서」, 『진단학보』22집, 진단학회, 1961. 168-175쪽

- 이영호, 「신라문무왕릉비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8권, 역사교육학회, 1986. 37-75쪽
- 이용범, 「해안 지역 민간신앙에서의 용신(龍神)의 위상」, 『제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3, 2012. 56-60쪽
- 이창식, 「〈利見臺歌〉와 ‘萬波息笛’ 說話의 性格」, 『동국어문논집』4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177-196쪽
- 이창식,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신라문화』4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115-142쪽
-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8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525-536쪽
- 한정호, 「감은사지 쌍탑과 고선사지 삼층석탑 비교 고찰」, 『석당논총』48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29-53쪽
- 황수영, 「感恩寺」, 『역사학보』15집, 역사학회, 1961. 135-145쪽
- 황수영, 「감은사지귀면와」, 『미술사학연구』22권, 한국미술사학회, 1962. 249쪽
- 황수영, 「新羅梵鐘과 萬波息笛 說話」, 『신라문화』1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7-11쪽

<Abstract>

The changing aspects of the deification
of King Munmu and its modern meanings
- on the ideas of the cultural contents applications -

Lee, Chae-gyeong

This paper discusses the shapes of dragons in the areas surrounding Daewangam. Many stories related to Daewangam, Yigyeondae, Gameunsa Geumdang, Manpasikjeok and Girimsa Yongyeon all have dragons as a motif.

The shapes of dragons found in various places and the meanings of their existence are shown as in the following. Firstly, Daewangam, where the guardian dragon was buried, represents the ruler's will to defend his country. Secondly, Yigyeondae is the place where people who wished to long for rain held rainmaking rituals. Thirdly, Gameunsa Geumdang, where a king of Silla reunited with his son, holds a father's love for his son. Fourthly, Jade belt and Manpasikjeok sent by the spiritual dragon endowed the king with the power to rule the world with the sound of the flute. Lastly, Girimsa Yongyeon, where the jade belt dragon ascended to heaven, is the place where people prayed for the prosperity of the royal family of Silla and their descendants.

Therefore, various ways to tell the tales of these dragons and create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m are as follows. Firstly, the 'Dragon road' can be built from Daewangam to Yigyeondae,

Gameunsa Geumdang, and Girimsa Yongyeon, following the tracks of the dragons. Secondly, 'Dragon Characters' can be made, each depict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guardian dragon, the gold dragon, the spiritual dragon, and the jade belt dragon. Lastly, a dragon-shaped clay doll of the Silla Dynasty can be produced as cultural products.

Key Words : dragon, Daewangam[guardian dragon], Yigyeondae[gold dragon], Gameunsa Yongdang[space dragon], Manpasikjeok[spiritual dragon], Girimsa Yongyeon[jade belt dragon], cultural contents, dragon road, dragon characters, dragon-shaped clay dolls, etc.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